

“기업 실적보고, 1년 4번에서 2번 축소”

트럼프 대통령 제안, 실현 가능성 60% 보고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오랜 관행인 ‘분기 실적 보고’를 폐지하고 반기(6개월) 보고 체제로 전환하자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1970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기 보고를 의무화한 지 55년 만에 제도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에 “기업이 매분기 보고 대신 6개월 단위로 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경영진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기업 경영에 50-100년의 시각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분기 단위로만 운영한다.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 보고 주기를 늘리자는 주장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 집권 시절 SEC에 3개월과 6개월 보고 주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으나 당시에는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추진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은행 TD 코헨의 자넷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SEC가 분기 보고에서 반기 보고로 전환할 확률을 60%로 본다”며 “특히 SEC 풀 앳킨스 위원장이 트



▲ 워싱턴 DC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건물. 사진=shutterstock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손쉬운 성과라는 점에서 실제 실행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최근에는 장기 목표를 중시하는 기업들을 상징시킨 ‘롱텀증권거래소’가 분기 보고 폐지를 SEC에 공식 청원하겠다고 밝히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찬성과 반대 논거는 뚜렷하다. 지지자들은 분기 보고가 비

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기업들이 장기 전략보다 단기 실적 달성에 매몰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또한 분기 보고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상장을 꺼리는 현상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분기 보고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세일즈크래프트시의 샘 캄프너 창업자는 “장기적 기업가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공시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2014년 영국은 분기 보고 의무 없였는데, 2018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결과는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다. 콜럼비아 경영대학원 시바람 라즈고팔 교수는 “분기 보고 폐지가 기업의 단기주의와 회계 조작을 끝내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깜깜이가 된 것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SEC가 실제 제도 개편에 나선다면 최소 반년은 걸릴 전망이다.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SEC가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제안서를 마련하는 데 6개월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앳킨스 위원장이 공개 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SEC 투자자 자문위원회 안전에 오르는지가 핵심 지표”라고 내다봤다.

8월 소매판매 예상밖 큰폭 증가

3개월 연속 견조한 증가세, 외식 0.7% 증가 반등

8월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와 외식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3개월 연속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무부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으며, 7월 수치도 기존 0.5%에서 0.6%로 상향 수정됐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를 크게 웃돈 결과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 증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제 판매량 증가는 0.2%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대리점 매출은 0.5% 늘었으나 판매 대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 매출은 1.0%, 스포츠용품·취미·약기·서점 매출은 0.8%, 식료품점 매출은 0.3% 증가했다. 주유소 매출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0.5% 늘었다.

정부는 지난주 8월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식품과 의류 가격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온라인 판매는 2.0% 급증하며 7월의 0.6% 증가세보다 훨씬 가팔랐다. 산탄데르의 스티븐 스탠리 미국 자본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관세 관련 가격 인상 전 미리 구매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매출은 0.3% 증가했으나 가구점 매출은 0.3% 줄었고, 건축자재·원에 장비 판매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 외식 지출도 늘어나 음식점과 주점 매출은 0.7% 증가하며 7월의 0.1% 감소에서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외식 지출을 가계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한다.

모건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앨런 켄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의 분위기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는 경제에 좋은 소식이지만, 연준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약화지만,

이런 데이터가 더 쌓이면 위원회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심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숫자퍼즐 정답 | | | | | | | | | |
|---------|---|---|---|---|---|---|---|---|--|
| 3 | 6 | 4 | 2 | 7 | 9 | 5 | 8 | 1 | |
| 1 | 5 | 7 | 3 | 6 | 8 | 2 | 4 | 9 | |
| 8 | 9 | 2 | 4 | 1 | 5 | 3 | 6 | 7 | |
| 2 | 1 | 6 | 7 | 5 | 4 | 9 | 3 | 8 | |
| 4 | 8 | 3 | 9 | 2 | 6 | 1 | 7 | 5 | |
| 5 | 7 | 9 | 8 | 3 | 1 | 4 | 2 | 6 | |
| 7 | 4 | 5 | 1 | 8 | 2 | 6 | 9 | 3 | |
| 6 | 2 | 8 | 5 | 9 | 3 | 7 | 1 | 4 | |
| 9 | 3 | 1 | 6 | 4 | 7 | 8 | 5 | 2 | |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65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800 부터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유경숙 치과 S. Beach 예당식당